

전체적으로 질의의 내용이 발제 논문에서 이미 검토했거나 짚어낸 것들로, 증언부언 재차 답변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독자·청중의 입장에서는 질의의 문맥이 낫설 수 있고, 성실히 답변해야 하는 것이 발제자에게 주어진 책무이기에 각 질의 항목 별로 순차대로 답변하겠습니다.

1. 청룡리 주민의 2009년 구술에 대해

구술이 지시하는 사건으로부터 150여년이 지난 2009년 청룡리 주민들의 구술을 재차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이 구술들을 ‘자연발생적·생득적 구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253~256쪽 참조), 일반적인 구술 연구 방법론이나 그 한계, 기억의 가변성과 불확실성, 대중 매체와 지자체의 프로파간다즘(홍보),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 등으로 인해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바우덕이 김암덕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기록이 없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우덕이의 실체는 ① 바우덕이 노래(민요) ② 1909년 《황성신문》 기사 ③ 1956년 경 김태영의 기록 ④ 1950년대 차병인의 구술 ⑤ 1950~70년대 (남운룡·정일파·최성구·양도일 등) 남사당패 원로들의 증언 ⑥ 1960년 무렵 청룡리 주민(이시용)의 구술 ⑦ 1968년 양도일의 인터뷰 ⑧ 1960~70년대 심우성·윤대성의 조사 ⑨ (안성시 주장의 근거가 된) 1981년 이래 이기선의 구술과 2009년 청룡리 주민들의 구술에 바탕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심지어 ②까지도 모두 구전(구술)의 기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그 동안 바우덕이가 1848(헌종 14)~1870(고종 7)년의 인물로 1865(고종 2)년에 경복궁에서 공연을 하였고 대원군을 만나 그로부터 옥관자를 하사받은 것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시기를 달리한 다종의 기록·전언·구술들 가운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장 후대에 속한 ⑨ 외에는 어디서든, 누구도 옥관자 하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원군의 옥관자 하사’가 역사적 사실이고, 따라서 과거 남사당 단원들이나 청룡리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①~⑧의 ‘원형적’ 구전의 기록이 생산된 1세기 동안 바우덕이 김암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화소話素라고 할 수 있는 옥관자 수상 사실이 이토록이나 일관되게 누락될 수도 있는 것인지 보편타당하게 수긍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2. 김종례의 구전과 구술의 한계, 그리고 지역신문 기사의 신뢰성에 대해

김종례의 전언은 2013년 발제자가 처음으로 조사한 내용이 아니라, 2001년 김종례의 진술을 채록한 이수자의 글을 통해 이미 공표된 적이 있음(264쪽 참조)을 먼저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2014) 이 증언을 질의

자가 재조사하니 이수자나 발제자가 채록한 것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술의 특성상, 누가 언제 어떤 의도로 묻는가에 따라, 구술자의 진술은 얼마든지 굴절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례의 증언 번복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발제자가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언급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어떤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공동감(sensus communis)에 바탕한 보편적 상식이라고 할 때, 그 상식에 기대 다음과 같은 질문은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례의 최초 증언이 있었던 2001년을 기점으로 잡으면 차병인과 '이름조차 모르는 거지패(걸립패?) 여자'와의 만남은 대략 70~80년 전의 일이고, 차병인이 김종례에게 이 사실을 말한 1950년대를 기점으로 삼으면 20~30년 전에 이루어진 일로 여겨집니다. 이름조차 모른다는 것은 상대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 '거지패에 속한 여자'라는 정보 이외에 상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양자의 접촉과 경험이 지속적이었대기보다 일회적·단발적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누구나 20~30년 간의 삶의 행정을 거치는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저장할 공간이 한정된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잡다한 사건들 중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들만을 취사선택해서 보존합니다. 기억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억 주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기적인 환기작용도 필요합니다.

차병인은 일제강점기의 무속인이었습니다. 예컨대, 차병인이 20~30년 전에, 백약이 무효인 불치병에 걸린 어떤 사람을 굿을 통해 극적으로 살려냈다고 한다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속을 미신으로 간주한 일경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그가 고초를 겪었다면 그 또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30년 전의 어느 날 '이름도 모르는 거지패 여자'가 불쌍해서 밥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20~3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까지 저장·보존될 만큼 한 사람의 삶에서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을까요? 게다가 한 세대가 지난 후 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 만큼 그것이 차병인에게는 의미심장한 일로 여겨졌던 것일까요?

김종례의 입장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김종례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던” 1950년대 어느 날 모친으로부터 20~30년 전에 '내가[차병인이] 어느 거지패 여자에게 밥을 준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김종례는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간접 경험인 이 이야기를 무려 50년 동안이나 기억의 창고 안에 고이 간직합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접어들어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동화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와는 전혀 무관한 어느 구비문학 연구자(이수자)가 녹음기를 들고 찾아왔을 때 '어머니(차병인)는 바우덕이를 만난 적이 있고 그와 함께 공연을 하기도 했다'는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다시 12년이 지난 후인 2013년 발제자(김한영)가 김종례에게 2001년 증언의 사실 여부를 물었을 때 확고한 어조로 '맞다, 이수자에게 증언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재확인하면서 소상하게 그 배경까지 설명해 줍니다. 본인의 증언이 안성시의 주장에 대한 유력한 반증 근거로 부각되어 안성시의 입장이 곤혹스럽게 된 최근(2014) 안성시의 담당 공무원(홍원익)이 다시 물었을 때 '아니다, 바우덕이가 아니었다'라고 답변합니다(또는,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태일까요? 70~80년 전 차병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어떤 여자가 불쌍해서 밥을 준 사건은 과연 두 세대에 걸쳐 전승될 만한 인상적인 기억일까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013년을 기점으로 하면 10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두 모녀 사이에서 기억되고 전승된 '어떤 여자와의 만남의 경험'을 질의자처럼, “따라서... (구술)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인지 곱씹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역에서 구술 조사를 해 보면, 조사의 시점과 목적, 조사자의 신분과 소속(관/민간), 조사자-진술자 간의 관계, 심지어 양자 간의 친소(親疎)·이해·가치판단의 차이, 지배적 구술과 대안적 구술의 위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된 주제의 민감성(정치성)에 따라서 진술자의 가림과 숨김, 과장과 축소 현상이 비밀비재함을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발제자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병인의 경험은 경험 주체의 삶에서 새기고 간직하기에 충분한 어떤 소중한 기억, 즉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어느 특별한 사람과의 뭔가 각별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인상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억으로 지속되었으며, 20~30년이 지난 후 딸에게 그 사실을 전승해 준 것이다. 김종례 또한 그런 의미 있는 기억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다시 50~60년이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서까지 그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으며 200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질의자도 인정한 바와 같이, 지난 십수 년간 ‘옥관자 바우덕이’를 주장해 온 안성시의 근거는 비교적 최근인 1981년 이래 이기전 등으로부터 채록한 구술 내용이 유일무이합니다. 발제자는 이기전에게서도, 질의자가 김종례의 증언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얻어낸 것과 동일한 결과를 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고인이 된 이기전이 이 자리에 나온다면, 그리고 발제자가 당대의 시대상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설명한 후 그의 구술에 보이는 모순과 허점을 지적해 가면서 되묻는다면, 그 또한 기존의 구술 내용과는 뉘앙스가 전혀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이기전의 증언도 1981년의 장현수, 1980년대 후반의 임영일, 1993년의 윤광봉 등 조사 시점과 조사자에 따라 내용이 달라졌다는 사실 참조). 구술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구술의 본디 속성이 그러한 것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종례의 사례는, 왜 구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가 위험한가—다시 말해, 5세대 이전인 150년 전 도성 한복판에서 안성 지역의 여사당(김암덕)과 당대 최고 권력자(홍선대원군) 사이에서 빚어졌다고 주장된 행위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서 구두진술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은 안성시 학예행정의 입장이 왜 신뢰받기 어려운가를 역설적으로 말해 주는 좋은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검증되지 않은 특정 지역신문을 인용한 것이 논문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렸다’고 운운한 대목은 난센스라고 봅니다. 관건은 지역신문인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술자(장현수)가 당시 인터뷰에서 그러한 발언을 실제로 했는가 아닌가의 문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질의자의 인식은 양도일의 진술이 중앙 일간지에 실렸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만큼이나 설득력 없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기]

발제자는 발제문에서, 문헌 기록상의 근거가 없는 바우덕이 김암덕의 역사적 진실을 유추함에 김종례의 증언을 ‘원형적 구술’로써 일정한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질의자(홍원익)는, 구술자(김종례)를 상대로 진술 내용을 재조사해보니 이수자(2001)와 발제자(김한영, 2013)에게 증언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어머님과 같이 어울렸다는 ‘바우덕이’도 실은 이름도 모르는 ‘거지패 여자’에게 불쌍하여 밥을 준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차병인의 구술도 바우덕이(의 역사성)를 증명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2014년 10월 4일 개최된 심포지움 진행 일정에 따라 발제자가 질의자로부터 위의 질의문을 받은 것은

9월 초순 경으로, 답변문 작성에는 한 달 쯤의 시간 여유가 있었다. 발제자는 과연 질의자의 재조사에서 김종례가, 위의 질의문이 담고 있는 내용과 같이 진술한 것인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김종례를 찾지 않았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발제자로서는, 다시 찾아가 재차 묻는 일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진술자에게 고문과도 흡사한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질의자는 심포지움의 현장에서 자신이 녹취한, 김종례의 육성 진술이 담긴 파일을 재생해 들려주었다. 20초 가량, 두어 마디의 대화가 담긴 짧은 내용이었지만, 거기서 김종례는 분명히 당시 어머니가 만난 여자를 “꼭두쇠”라고 지칭했다. 우리의 논의에서 ‘이름도 모르는 거지패의 어떤 여자’와 ‘당시 꼭두쇠였던 여자(예인)’는 그 시사하는 바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발제자는 녹음 육성을 들은 직후 현장에서 바로 질의자에게 확인했다. 진술자(김종례)가 그 여자를 ‘꼭두쇠’로 지칭한 것이 맞느냐?고. 물론 질의자는 ‘그렇다’라고 시인했다. 구술자가 ‘꼭두쇠였던 여자’라고 말한 진술이 질의문에서는 단지 ‘이름도 모르는 어떤 여자’로만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논의 문맥에서 그가 ‘꼭두쇠였던 여자’였는지, ‘이름도 모르는 어떤 여자’였는지는 바우덕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질의문에서는 그 실체의 일부에 대한 가림 현상의 개입이 확인되었고(이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구술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질의자의 주장이 과연 설득력 있는 것인지 의문시될 수밖에 없었다.

12년의 시차를 두고 어머니가 명시적으로 ‘바우덕이’라고 말했다고 한 2001·2013년의 두 차례의 구술은, ‘바우덕이가 아니었다’고 조사한 2014년의 진술과 극명하게 엇갈린다. 그러므로 차병인이 김종례에게 애초에(1950년대에) ‘바우덕이와 놀았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했던 것인지, 아니면 ‘꼭두쇠였던 여자와 놀았다’고 말한 차병인의 구술을 김종례가 바우덕이로 새긴 것인지 우리는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60~70년 전 차병인이 김종례에게 전한 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의자의 재조사에서도 김종례가 당시의 여성 예인을 “꼭두쇠”로 지칭한 것이 분명한 이상, 차병인이 가까이 지냈고 함께 공연을 하기도 했던 여자가 당시 “꼭두쇠”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일제 강점 전반기에 안성 지역에서 ‘꼭두쇠’를 했던 여자(즉 예인), 그가 누구였는지를 유추해내는 일이다. 발제자는, 김종례가 구술 내용을 번복했다는 질의자의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2001년과 2013년에 김종례가 이수자와 발제자에게 바우덕이가 분명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여성 예인이 바우덕이였는지 아닌지를 가름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구술자의 진술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려두고서 자신이 듣기를 원한 내용만 공개한 채 ‘바우덕이는 아니었다’라고 결론 내린 질의자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 증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일제 강점 초기 안성 지역에서 꽤거리 내의 직책을 일컬어 ‘꼭두쇠’라는 용어를 사용한 예인집단은 남사당패 밖에 없다. 당대는 물론 우리나라 남사당패 전체에서 꼭두쇠를 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또한 바우덕이 김암덕이 유일하다. 그런 점에서, 김종례가 말한 ‘어떤 여성 예인’의 당시 직책이 “꼭두쇠”였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진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가린 채 질의자가 결론 내린 것처럼, 바우덕이 김암덕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함에 “구술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김종례의 진술을 배제하는 것은 옳은 태도일까? 진술자의 모친이 만나서 함께 공연까지 한 여자가 ‘꼭두쇠였던 여자’였는지, 그냥 ‘어떤 여자’였는지에 대한 차별성을 몰각시킨 구술 조사와 이에 바탕한 결론이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구술은 조사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동일한 구술자의 증언을 수용/배제하는 데서 해석자(조사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제자가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김종례가 제조사의 증언에서 ‘어떤 여자’를 “꼭두쇠”라고 말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가 바로 바우덕이 김암덕이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이 증언이 구술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한다.

3. 1968년 양도일의 인터뷰 진술에 대해

양도일의 1968년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는 발제자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대(1960~70년대)에 직접 그와 만나 많은 교류를 하였던 인사들의 전언(281~285쪽 참조)에 비취볼 때 보편타당하게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입니다. 아울러, 1900년대 초반 안성 남사당패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바우덕이라는 인물에 대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술했을 것이 분명하나, 그의 인터뷰 진술에 ‘옥관자’ 화소가 보이지 않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항의 질의 내용을 거칠게 단순화하면, ‘양도일은 노망기가 있어서 종종 꾸며낸 말을 하곤 했다 한다’ → ‘따라서 그가 한 말은 모두 거짓이다’ → ‘그러므로 남사당놀이의 문화재 지정은 취소해야 한다’는 질의자의 당위를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자는 여기서 두 가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종종’이라는 빈도의 부사에 주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도일의 진술을 평가한 사람이 심우성·윤대성이라는 점이 그것입니다. 다수 대중이 전문가의 관점을 신뢰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잡다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합리적 분별을 통해 타당한 판단과 결론을 도출하는 안목과 능력을 지녔다고 인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질의자는 안성시라는 지자체의 학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안성시의 학예행정은 전문성이 의문시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권한과 예산을 독점한 채 ‘종종’ 공익보다는 사리사욕을 추구하면서 불법을 자행해 왔다’ → ‘따라서 안성시의 학예행정은 안성지역학 연구의 최대 걸림돌이었고, 막대한 세금만 탕진한 채 효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 ‘결론적으로, 안성시의 학예행정을 폐지하고 그 동안 이루어진 모든 학예행정의 행위들을 원인무효로 해야 마땅하다.’ 발제자는 이런 극단적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혹여, 그런 폐악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지, 원인무효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형문화재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지를 묻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발제자는 실사, 양도일의 말과 행적이 모두 다 꾸며낸 허구라고 할지라도, 겨레의 문화자산인 남사당 전통의 가치가 손상을 입을 이유가 거의 없다고 확신합니다. 남사당의 역사에 대한 학술 연구와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양도일의 말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닐뿐더러, 그의 진술과 행적만을 남사당 전통의 전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1950년대 중후반의 김태영의 기록과 바우덕이 속요에 대해

『안성문화금석관安城文化今昔觀』의 관련 내용(263~264쪽)에서는 두 가지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김태영이 즐겨 사용한 “고래古來로”라는, 절대 시제의 가늠이 막연한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발화의 시점입니다. “고래로”가 지시하는 시점을 유추하는 데서 김태영의 생년인 1895년이나 안성에 정착한 해인 1919년은 무의미합니다. “고래로”는 김태영이 이 글을 집필한 1956~58년 경에 과거를 회상하며 ‘예전에’ 정도의 어감으로 사용한 상투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그의 전언에서는 바우덕이의 '경복궁 공연-옥관자 하사'와 관련하여 어떤 정보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발제문은 바우덕이의 '경복궁 공연-옥관자 하사'라는 화소의 역사적 진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자는 발제자의 논문이 김태영의 글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관점과 주제로 접근하는 연구라면 모르겠지만, '바우덕이의 경복궁 공연-옥관자 하사'의 사실성 여부의 검증은 논제로 삼은 본고에서 어떤 측면을 어떻게 더 분석해야 한다는 것인지 발제자로서는 수궁하기 어렵습니다.

안성지역에서 전승된 바우덕이 구전 가운데 정작 면밀한 분석과 고찰이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구술 또는 전언이 아니라, 속요(민중의 노래=민요)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의 노래가 민중의 지혜, 민중이 생산한 지식·정보의 압축판이라고 할 때, '안성 청룡 바우덕이~'로 시작하는 속요에 주목하고, 그 화소를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일정한 시간을 두고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참여에 의한 검증을 거쳐 정착되고 전승된 민요는 특정 개인(들)의 구술과 달리 가변성이 희박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과거 민중(청룡리 주민)들 사이에서 불렸던 이 민요가 바우덕이라는 인물에 대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정보의 총체를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노래의 형성 시점은 이르면 1800년대 중후반, 늦으면 1910~20년 무렵 또는 그 직후일 것으로 여겨지는데, 발제자는 후자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이 노래의 주인공인 바우덕이 김암덕이 경복궁에 가서 공연한 후 흥선대원군이 크게 치하하여 옥관자를 하사했다면, 노랫말에 이 화소(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가 어떤 형태로건 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이 민요의 내용을 분석하면, ① '바우덕이가 소고를 드니/치마를 들으니/줄 위에 오르니 돈이 쏟아진다,' ② '바우덕이 집에서는 사랑놀이를 한다,' ③ '바우덕이는 바람결에 떠나간다' 라는 세 가지의 핵심적 내러티브가 추출됩니다. 이 화소들은 바우덕이가, 첫째, 구경꾼들이 기꺼이 동전을 던질 만큼 기예가 출중했다, 둘째, 매춘을 생업의 한 수단으로 삼았다, 셋째, 한 곳에 붙박이지 않고 떠돌며 살았다 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발제자는 이 화소들이 '기예-매춘-유랑'이라는 바우덕이 사당패의 존재 방식과 행적의 특성을 가장 잘, 함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1900년대 전반기 안성 지역민들에게 알려진 사당 바우덕이의 본연의 모습, 즉 그의 행적, 그의 존재와 관련하여 과거 주민들에게 각인된 영상의 전부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떠돌이 천민이 당대 권력의 최고 실세로부터 옥관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의 면모를 특징적으로,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데서—다시 말해, 바우덕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스토리텔링하는 데서—옥관자 모티브는 매우 요긴한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요에서 '경복궁-대원군-옥관자' 화소는 물론,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암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5. 그간 안성시가 홍보해 온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자가 이 항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바우덕이의 경복궁 공연과 옥관자 하사가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다는 질의자의 '신념'에 반해, 발제자가 '민속연희 경연대회' 개최의 허구성을 부각시켜 논지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어간다는 하소연으로 여겨집니다. 발제자의 논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동안 이 담론의 형성 과정을 살펴볼 때 가장 널리 전파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이 인용된 중심 텍스트는 『안성군지』(1990)임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농악)경연대회’가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음(243쪽)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제자의 논문은 당시의 공연이 경연대회가 아니었다는 점보다도, 당시의 공연 양상과 시대상황을 면밀히 고찰할 때 ‘바우덕이가 경복궁 공연에 참가했거나 옥관자를 하사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어떤 징후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닌가요? 또한 질의자는 본고의 분량이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이 담론의 논의 과정에서, 특히 바우덕이에 대한 옥관자 하사의 가능성을 경복궁 중건이 시역始役된 1865년 4~5월의 시대상황과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입지 등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토대로 논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바우덕이 담론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고증의 필요성으로 인해 일정한 지면의 할애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6. 과거 예인들의 옥관자에 대해

무자년(1468) 무렵에 광대[優人] 수십 명이 나례[禮]를 행하는 가운데 모두 **당상관의 복장을 갖추고**(즉, 옥관자를 달고—인용자) 궁궐의 뜰에 들어왔다. 서로 희롱하기를, “영공(永公)은 어느 때에 당상관이 되었기에 복장이 이러한가?” 하니, 다른 광대가 응하기를, “내가 경진년(1460)에 무과에 급제하여 신사년(1461) 겨울에 양전 경차관(量田敬差官)이 되고, 정해년(1467) 가을에 이시애(李施愛)를 잡아서 드디어 여기에 이르렀다” 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조롱하듯 웃었다(『예종실록』, 1469년 3월 11일).

‘(궁중)광대의 옥관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실 **유별난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 집니다. 관청에 소속된 예인의 옥관자 또는 당상관 관복 착용은,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궁중에서 나희[儼戲]를 공연하기 위한 일종의 연출 행위로부터 비롯된, 조선 초기 이래의 관행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중친이나 사대부 또는 (인조·영조 연간 이전의) 나례도감·(그 이후의) 의금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경중우인[京中優人]들의 경우 나례와 같은 궁중 의식에서 망건에 옥관자를 단 복색을 연출한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인용문에서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31~332쪽 주219에서 말한 조선 말기의 “옥당기생,” ‘관복 출사한 이동백,’ “궁중의 예기”는 나희의 배우들과 신분이나 역할이 다를 바 없는 관속이거나 관변의 가객·놀이꾼들입니다. 따라서 조정에서 공연한 이들 관변의 재인들이 옥관자를 패용한 일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팔천[八賤]보다 더 위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던 떠돌이 놀이패의 여사당에게 옥관자가 하사되었다면 “경천동지할”[안성시 홍보자료]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바우덕이와 같은 사당에게 옥관자를 하사했다는 사례가 전무후무하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영역에서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규범과 관습화한 관행을 벗어나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연극과도 같은 의식(공연)이 이루어지는 무대 위에서의 아니라, 사회적 금기와 제도적 강제가 작용하는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로 보면, 옥관자와 같은 격려 의미를 담은 상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궁중의 기녀나 관속[官屬]·관변의 광대(예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생 집단에서 1패, 2패, 3패가 엄격히 구분되었듯이, 과거 예인들의 경우도 사회적 인식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잘 알다시피, 떠돌이 놀이패를 이룬 사당들은 예인집단에서도 가장 신분이나 처우가 낮은 존재들로 하대·천시받았습니다. 조선 후기와 말기에 들어서 관속 재인에게 옥관자를 달게 하는 일은 관습적인 일이었지만, 안성시의 홍보자료들이 말하듯이, 그것이 떠돌이 천민인 여사당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모두가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였을 게 분명합니다.

발제자의 2009년 글은, 그러므로 권력의 심부에서 안성지역의 여사당 바우덕이에게 정3품의 고위관료들이 패용했던 옥관자를 하사한 상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시(1865) 안성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와 그 이후에 생산된 공사간의 기록이나 구전 등 어디서도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지요.

질의자는 궁중우인, 옥당의 관기, 재인청 광대와 같이 일정한 사회적 위상을 인정받은 제도권 안의 예인과, 천민 중의 천민인 떠돌이 여사당 사이에 가로놓인 근본적인 신분상의 차이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예기藝妓’라는 표현이 암시하듯, 심지어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일반의 인식에는 기생은 예藝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나, 여사당의 행위를 예와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을 게 분명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조망하는 일, 특히 문화와 같이 섬세한 영역을 탐구하는 활동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시간의 원근법’을 몰각하는 일일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태서는 현재의 관점이 아니라 당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해소되지 못한 이 문제는, 시간적·공간적·제도적 경계, 학술 연구와 행정의 당위 사이에 놓인 경계의 구분에 대한 분별을 얻지 못한 지자체 학예행정의 패착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7. 《황성신문》(1909)과 《매일신보》(1914)의 기사에 대해

1909. 10. 2일자 《황성신문》 <잡보雜報> 중 ‘비취시앵무翡翠是鸚鵡’라는 기사(도판 <7-28>)에서 “안성 청룡 바우덕이(=바우덕이)”라는 실명을 찾아낸 것은 주목할 만한 새로운 발견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통해, 그동안 안성시가 주장해 온 ‘바우덕이의 경복궁 공연-대원군의 옥관자 하사’의 어떤 부분이 입증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 그 개연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는 것인지 발제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의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되묻고자 합니다. 이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면, 우리의 논의에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이 자료의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고 불충분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정보는 ‘안성 청룡 바우덕이가 비록 타령을 잘 하지만(또는, 잘 한다지만) 비취翡翠의 기량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당시의 다수 대중도 공유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 기사의 필자를 포함한 소수의 특수집단만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단편의 정보를 바탕으로 바우덕이 김암덕의 역사성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도리어, 질의자의 기대와 달리, 그가 1910년 무렵 활동했음을 방증하는 사료의 하나로써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당시 바우덕이보다 더 뛰어난다고 평가된 예인(들)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바우덕이가 당대의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최고의 기량을 지닌 예인이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입장이라면 이 자료의 공개를 주저했을 수도 있겠으나, 흔쾌히 공개한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1914년 1월 28일부터 같은 해 6월 16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예단일백인藝壇一百人>은 당대의 예술계 인사와 지식인들 사이에 ‘예藝’ 또는 ‘예술’에 대한 근대적 개념이 생성되기 시작한 무렵에 연재된 것입니다. 질의자는 이 기사에서 소개한 100인 가운데 바우덕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1914년 이전에 사망한 인물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황성신문》 <잡보>에 등장하는 비취는 1909년 당시 20대 전후의 젊은 여성이었던 것으로 어렵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행실로 보아 기생이었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황성신문》이 바우덕이보다 더 월등한 기량을 지닌 인물로 평가한 비취 역시 <예단일백인>에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취도 1914년 이전에 죽은 인물로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 점에서, 바우덕이가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1914년의 <예단일백인>에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 시점에(안성시의 주장에 따르면 1870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건강부회의 역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은 이 기사가 연재된 《매일신보》라는 매체의 속성이나 기획 의도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한층 명확해 집니다. 이 매체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일강 초기 조선인에 대한 우민화 정책에 앞장섰던 신문입니다. <예단일백인> 기획기사는 4년 후인 1918년 아오야기 쓰나타로(青柳綱太郎)가 지송옥(池松旭)과 함께 펴낸 『조선미인보감(朝鮮美人寶鑑)』과 기획 의도나 서술 방식에서 매우 흡사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질의자가 말한 바와 같이, 여기에 소개된 예인 100인 중 절대 다수(90%)는 여성인 기생들입니다. 이 기사는 『조선미인보감』과 마찬가지로 예능인이기 이전에, 언제든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관리들과 조선인 부호들이 술자리로 불러낼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여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사는 대중 극장 및 극단이 등장하기 시작한 이 무렵의 근대 극장(협률사[1902], 광무대·단성사[1907], 원각사·연흥사·장안사[1908] 등)에 소속되거나 여기에 연계된 예인(기녀)들을 띄우기 위한 홍보성 기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근대기 황색 저널리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사는 기획 연재물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당시 특정 여성 예능인들의 기예와 성을 ‘살’ 수 있는 잠재적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광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기획물의 생산자(신문사)와 소비자(독자)에게는 여기에 소개된 예능인들이 당대 최고의 예술적 기량을 갖춘 존엄한 인격체였다기보다, 상류 사교계를 상대하는 ‘고급 콜걸’ 정도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당시에는, 머슴이나 장돌뱅이를 상대한 작부나 다름없는 3패 기생과 동류로 인식되었던 떠돌이 사당과 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그들의 품위에 손상을 끼치는 일로 여겼을 게 분명합니다. 이 기획기사에는, 바우덕이가 당시 활동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했다는 질의자의 주장과 달리, 사회적 신분이나 ‘상품’의 품격으로 보아 애초에 바우덕이와 같은 여사당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실상에 부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바우덕이가 포함되지 않았으니 그 이전 시점에 사망했음이 분명하다는 질의자의 인식은, 최고의 기량을 갖춘 바우덕이가 옥관자를 안 받았을 리 없다는 단순 논리와 궤를 같이 하는 성급한 추단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설득력은 없지만, 1920년대 초반에 병사했다는 과거 남사당 원로 단원들과 청룡리 주민(이시용)의 구술과 달리, 바우덕이가 1914년 이전에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고 상정해 봅시다. 그러면 경복궁 공연과 대원군의 옥관자 하사는 입증된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황성신문》의 기사가 새로운 자료의 발굴인 건 분명하지만, 당면한 논의에 어떤 시사를 던져줄 수 있는 내용은 없으며, 따라서 1890년대에 태어나 1920년대 초반에 사망한 인물로 여겨지는 바우덕이 김암덕에 관한 우리의 인식에서 변할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자는 질의의 말미에서 (‘경복궁 공연-옥관자 하사’가 마땅히 역사적 사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문시한) 발제자의 논문은 “오류를 범한 논문이므로...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마디로, 발제자의 학술적 연구 결과를 ‘되짜 놓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주장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시키기보다, 주어진 자료를 자신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해석하지 않은 것을 모두 오류로 간주하는 매우 위험한, 독단적인 사고가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제자로서는 무엇이 오류이고,

왜 다시 써야 하는 것인지 수궁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자의 의견은 일단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십수 년간 질의자는 지자체의 학예 업무를 담당하면서 심판자·입법자의 위치에서 지역학 연구와 관련된 사업들을 재단하고 독점해 왔습니다. 전문성이 취약한 행정의 권한과 예산을 앞세워 학술 연구를 취약피락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늘 의문이지만, 위의 주장은 심판자 의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발제자의 논문이 오류를 범했다고 자의로 판정하여 “다시 쓰라”고 퇴짜를 놓기 이전에, 안성시의 학예행정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안성시가 주장해 온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보편타당하게 입증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럴진대도 질의자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우덕이는 1865년대의 인물로 써 대원군으로부터 옥관자를 하사받았다’는 절대 불변하는 (또는 당위적으로 불변해야만 하는) 대전제를 상정한 후, 발제자의 논문을 포함한 모든 개별 사태들을 이 전제에 맞추어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추상적 원리들 *abstrakte Prinzipien*에 대한 개념적 사유를 특징으로 하는 사변적 학문과 달리, 사실의 탐구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민속·역사학적 연구의 기본을 몰각한 것입니다. 질의자는 그간 본 발제자에게, 자신이 학자임을 수차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의 적실성 여부를 떠나, 질의자가 정말로 민속학을 연구하는 학자라면 학술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 것도 그런 연유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질의자가 잘 알다시피, 지난 십수 년간 바우덕이 담론을 둘러싸고 안성 지역에서는 학자와 전문가를 참칭한 일단의 무리들에 의한 곡학아세가 창궐했고, 이들이 ‘옥관자 바우덕이’를 줄 위에 올린 후 쏟아져 내린 이권을 쓸어 담아 왔습니다. 이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지역의 문화 역사에 대한 학술 연구와 지자체 학예행정의 관계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우리의 별거벗은 현실에 대한 관련자 제위의 냉철한 성찰과 새로운 발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현시점에서, ‘바우덕이 논쟁’이 불러온 갈등과 상처를 넘어 우리의 남사당 전통과 과거의 (남)사당패가 우리에게 전해준 전승문화의 참된 의미를 향해 모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